

“금속노조 가입하니 출근이 즐겁습니다”

경주시부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설립 ... 15년 장기집권 기업노조 해산 쾌거

금속노조와 각 지부의 공단 조직화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9월 크린팩토메이션 노동자들이 지회를 세우고 경기지부에 가입한 데 이어서, 11월 말 일진하이솔루스 노동자들이 지회를 건설하고 전북지부에 가입했고, 11월 말 현대성우솔라이트 노동자들이 지회를 설립하고 경주시부에 가입했다.

금속노조 경주시부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는 지난해 2월 민주노조설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해 현장 조직화에 나섰다. 11월 27일 15명 지회 가입으로 시작해서, 11월 29일 조합원 171명이 과반노조 상태에서 설립총회를 열었다. 29일 총회일 오전에 가입 대상 노동자의 2/3가 지회에 가입했다.

지회 조합원들은 총회를 통해 지회규칙을 제정하고, 김환철 지회장, 정기화 수석부지회장, 김정대 부지회장, 남호찬 사무장 등 지회 임원을 선출했다.

12월 1일 현장 조합원 대부분이 금속노조 지회에 가입하면서 기존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해산하고 지회에 조합비를 양도했다.

지회는 총회 직후 사측에 실무교섭을 요청했고, 11월 30일 실무교섭



을 시작해 12월 2일 3차 교섭에서 금속노조 인정, 불이익금지, 조합사무실 제공, 전임자 인정, 조합비 일괄 공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금속노조 기본협약서에 합의했다. 지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22년 임금교섭에 나설 예정이며, 각종 위원회 노·사 실무 협의, 대의원 선거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환철 지회장은 금속노조 가입 계기로 한국노총 소속 노조 위원장의 독재, 비위행위, 임금·단체협약 등 교섭 밀실야합, 주간연속 2교대제 요구, 임금체계 불만 등을 들었다.

김환철 지회장은 조합원들이 민주노조에 대한 열망, 한국노총에 대한 불만, 기업노조에 대한 불신감을 동시에 표출하면서 압도적 가결로 금속노조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김환철 지회장은 “현장에 생동감이 살아났다. 조합원들이 출근이 즐겁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맛 난다고 한다” 라면서 “지회 설립

전에는 출근과 동시에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지금은 코로나 확진돼도 출근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일터 분위기가 밝다” 라고 귀띔했다.

김환철 지회장은 “지회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현장 순회, 소식지 발행, 게시판 운영 등을 실천할 계

획이다” 라며 “이전 노조 시절에 불합리한 배치전환, 불이익 처우를 참기만 했다. 이제 지회의 단결한 힘과 민주노조 절차·방식으로 조합원들의 권리와 안전을 최대한 쟁취하겠다” 라고 약속했다.

김환철 지회장은 “현대성우솔라이트 계열 자회사에도 민주노조 바람이 불었으면 한다” 라며 “금속노동자들이 미조직 사업장 조직에 관한 관심을 더 기울였으면 한다.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조합원들이 언제나 연대하겠다” 라고 결의했다.

현대성우솔라이트는 경주시 건천읍에 공장이 있다. 자동차용 배터리를 주로 만들어 납품하고, 현대차·기아차 배터리 점유율 1위 회사다. 산업용, 농업용, 선박용 배터리도 만들고 자동차부품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현대성우홀딩스 산하에 현대성우솔라이트, 현대성우캐스팅, 현대성우신소재 등 계열사가 있다.